

***근대관청건물의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the Modern Government Office

오인욱* / Oh, In-Wook
이근혜** / Lee, Keun-Hye

Abstract

Modern architecture is very Important part of korean architecture history. Because It's a role in terms of connecting traditional and current architecture and introduction of western architecture. Accordingly, At this meaninglessly going out and leaving of modern archite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ystematic researching of the modern Government Office interior.

This study to research into the period context at construction of the modern Government Office and tendency of architecture and interior at that time. And understand interior space organization of it. The modern Government Office adopted Neo-Baroque style from tendency of that time. Also, showed composite order which is mixed in the Greek temple, the Renaissance and the classic style representing the power. But, after late 1920 It adopted Modern Style. This characteristic is different from current composit order, which is comprehended by our. In order to understand aesthetic value of current straight interior space, It have to be interacted the present and past. But It's averted because it was made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We should explore history of interior design that is endowed with sociality and historicity between modern and future interior space as well as current.

키워드 : 근대 실내건축, 근대관청, 실내공간표현, 실내디자인 사

Keywords : Modern Interior Architecture, Modern Government Office, Interior Expression, History of Interior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관청이란 사회적·통속적으로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국가의 관서를 뜻하는 말로써 근대 관청 건물이라 함은 1876년 개항 이후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건축적 산물 중 일본이 본격적으로 일제 통치를 하기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을 뜻한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근대적 건축물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나라에 건립된 주요 관청 건물의 실내 공간 구성을 고찰하여 변천 과정과 디자인 표현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한국 실내디자인의 명맥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관청건축물의 실내 공간구성과 실내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근대 실내디

자인 역사를 정리하는데 있어 근간이 될 수 있는 관청 실내공간의 표현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근대건축물의 실내디자인 역사를 정리하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고, 방치되는 근대건축물이 건축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내 공간구성을 다시금 각인시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지어진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관청 건물인 경성부청, 인천 부청, 경성 제3계관소등 8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관련 문헌과 도면, 사진 그림 등 특히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자료를 중심으로 실내 공간 구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관청 건축물들이 건립되기 시작한 192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동시대의 서구의 건축 및 실내디자인 경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각각의 관청 건축물의 실내 공간 구성과 실내디자인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본 논문은 2007년도 경원대학교 교내 연구지원비에 의한 연구 결과임.

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관청 건물의 태동과 시대적 배경

2.1. 관청 건물의 태동

청사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행정사무를 보기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총칭¹⁾을 말한다. 관청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발달하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장소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2세기 봉건제에 대항하는 강력한 자치정부의 출현으로부터 근대적 의미의 관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또한,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자본이 축적되고 행정의 규모가 성장하기 시작한 16세기 르네상스시대이다.

우리나라의 관청개념의 건물은 관아³⁾건축이었으나 이는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기관이었고, 근대적인 우리나라의 관청 건물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위해 세워진 조선총독부 청사와 각 지역의 도청사, 부청사 및 군청사 등이 세워지고 경찰서와 법원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일제 강점기를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고, 이에 따른 관청 건물이 필요로 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근대관청은 일제의 무단통치시기에 식민지 통치 세력의 지배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시설물이라 볼 수 있다. 행정을 위한 기능과 식민통치를 부각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서구의 양식건축, 고전주의 양식 등 거대한 규모와 우월함과 권위를 강조하는 엄격한 좌우 대칭의 평면과 권위적인 외관을 갖고 있다. 점차 서구 건축에 대한 소개와 경제력 등의 조건에 의해 20년대 중반에는 더 근대적인 형태로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2.2. 시대적 배경

19세기 말까지의 일본은 근대화라기보다는 서구화라는 과정을 먼저 겪게 된다. 이시기에는 서양건축가들에 의해 서양의 양식을 그대로 이식하는 양상이 절대적 이었다. 그러나 교류가 많아지고 서양의 건축이 소개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이후에 와서는 서양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모더니즘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또한, 1920년대의 공황 속에서 일본기업의 집중과 합리화가 진행되어 건축의 각 분야에서도 합리적인 변화가 가속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총독부 청사가 건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청건물들이 들어서게 된다. 조선총독부 청사가 착공된 1916년경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등의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지만 준공될 즈음인 1920년대에는 이미 이런 고전주의 양식이 퇴보하고 있었고, 새로운 국제건축양식이 당시 젊은이들에게 강하게 인식될 때였다. 이시기의 관청 건물로는 조선총독부 청사(1926)를 비롯해 경성부청, 경성 3재판소, 경성중앙우편국, 총독부 체신관 분국, 각 지역의 부청 및 도청 등이 있다. 이처럼 이 시기에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의 새로운 관청 건축물들이 출현하고 있는 시기였다.

2.3. 근대 서구 실내 공간구성의 표현

일제강점기 시기 서구에서도 역시 여러 나라에 식민통치로 세력을 키우고 있을 시기였다. 이에 서구제국의 건축은 권력 국가 또는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뽐내기 위해 스케일 큰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등의 식민주의 양식인 신고전주의와 빅토리안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적 진보와 대중의 개념이 싹트면서 새로이 부를 축적한 중산층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엄청난 부의 증대를 수반한 중산계급은 화려한 장식의 사회의 지위를 대변하는 소위 '고귀한 예술'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내 공간 계획에 있어서 디자인에 관계없이 단지 표면에 장식의 첨가되거나, 지나치게 꾸며진 의미 없는 장식물로 표현이 되었다. 근대 실내공간은 근대화를 지향하면서도 충분히 그 시대에 대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정확한 시대적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실내와 가구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장식, 낭만적 유행의 혼돈된 분위기 추구 등으로 일반적으로 폐쇄적이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장식 위주의 실내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다. 19세기의 지나친 장식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혐오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조각적이며 폐쇄적인 공간 환경의 혼란한 조건에 대하여 실내공간을 인간의 생활에 편리한 형태로 창조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다.⁴⁾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형태의 간결성, 개방성, 실용성 등의 모더니즘 형태의 입면과 실내공간이 표현되고 있었다. 근대 실내공간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순익, 건축학용어사전, 도서출판세지

2)박현우, 지방자치시대의 공공청사에 관한연구, 중앙대 석론, 2006, p.14

3)관아는 관의 일을 담당하는 고, 즉 정부 또는 행정부의 건물이라는 뜻이다. 또한, 중앙 행정부의 기관 뿐 아니라 지방의 동, 촌, 부, 군에 있는 지방관서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관아는 규모와 성격이 지방과 다르며, 궁궐의 내외에 대규모의 국가행정을 맡아오는 건물들을 말한다.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1999, p.324

4)박진배, 근대서구 실내디자인 특성의 정립과정에 관한 고찰, 연세대 석논, 1988,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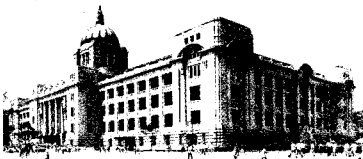
<표 1> 근대 실내공간의 표현특성

특징	내용	
고전주의	과다한 장식	부를 과시하기 위해 실용적이지 못하고 과장한 장식을 위주로 실내를 채움
	공간의 폐쇄성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가구를 사들이고 모든 공간을 가구로 채움
절충주의	장식의 배제	권력과 위엄을 표현하기위한 장식이 사용되지만 다소 절제된 형태의 장식.
	부분적 개방 평면	전체적인 공간의 형태는 폐쇄성을 갖고 있으나 평면 안에서는 개방성을 갖고 있다.
모더니즘	실용적인 공간	지나친 가구 사용을 배제하고 필요한 가구를 적절히 배치. 간결화, 실용화를 추구
	공간의 개방성	평면의 구성에 있어서도 칸막이벽의 배제 등으로 인한 개방성을 추구 하고 전체적으로도 대칭의 형태가 사라짐.

3. 근대 관청건물의 실내 공간 분석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을 통치하게 된 일본은 조선총독부 관하에 의하여 식민지 통치에 편리하게 행정과 법 체제를 재조직하고 비장의 말단까지 일본인을 관사로 임용하여 행정 강화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가 완공되고 난 후 건립된 경성부청, 경성 제3재판소등의 완공으로 식민통치를 위한 주요 관청은 건립이 되고, 그 이후에 지방의 각 도청, 부청, 경찰서 등이 지어 지게 된다.

3.1. 조선총독부



<그림 1> 조선총독부 청사 외관

조선총독부의 설계는 1912년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크 데라란데⁵⁾의 계획을 바탕으로 하였다. 설계 계획안은 1912년부터 착수되었고, 1914년 전반적인 계획은 끝났다. 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6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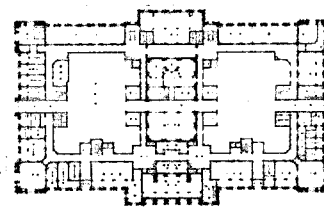
이르기까지 장장 10년에 걸친 공사로 일본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총독부 청사 신축과정에서 독일과 일본의 건축가들 뿐 아니라 박길룡, 이훈우, 이규상, 기득린, 손형순, 박동린 등 우리 건축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모던으로 가기 직전의 르네상스풍의 지상 4층 지하1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중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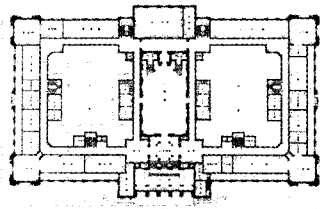
5)프러시아계 독일인으로 제국 건축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건축가가 되었으며, 베를린 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베를린에서 건축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한창 서양 건축가들을 대량으로 불러 들였다. 독일 또한 식민제국을 거느리기 시작하던 때였다. 독일의 많은 건축가들이 식민지로 진출할 무렵 일본에 이미 와 있던 독일인 건축가 켈(Richard Seel, 1854~1922)의 요구로 데라란데도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가 남긴 근대건축물로는 일본의 요코하마, 고베 등지에서 상공관과 호텔, 저택을 주로 설계를 하는 등 거류지 건축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영사관 조선 주차군 사령부관저, 조선 호텔 등이 있다.

높고 큰 돔을 올려 중심부를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에 아시아 최대의 돔으로 내부 천장엔 독일산 무색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끼워져 있었다. 이 흰색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당시 독일이서 유행하던 것이었다.⁶⁾ 엄격한 좌우 대칭을 이루어 권위적이고 엄격성이 강한 건물이 되었다. 당시 서구 열강이 식민지에 앞 다투어 지은 전형적인 식민지풍⁷⁾의 제국주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총독부 건물의 대부분 재료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사용하였고, 그 외의 장식, 문 철물, 하드웨어 등은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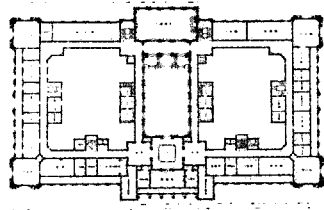
(1)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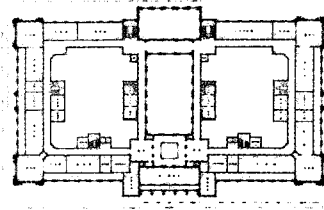
<그림 2> 1층 평면도



<그림 3> 2층 평면도



<그림 4> 3층 평면도



<그림 5> 4층 평면도

조선총독부 건물의 기본적인 평면 계획은 대칭형의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고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다. 2개의 중정이 배치된 장방형의 평면으로 계획되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의 실들을 외곽 둘레에 배치를 하였다.

건물 내부 2, 3, 4층의 전면 쪽 중앙부에 소규모의 중앙홀과 좌·우 홀이 있다. 이것들은 복도 및 현관과 연결되어 원활한 동선체계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층에서의 직선형 통로는 연속적인 공간을 위한 가장 좋은 구성요소이며 순환하는 형태의 통로로서 평행한 면으로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의 흐름으로 처리되었다.⁸⁾ 또한, 복도와 계단실 등의 앞에 위치한 후부홀 복도의 좌·우의 양측면에 각각 2개씩의 원기둥을 배치하여 복도의 기능과 함께 전설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층별 실내 공간 구성은 <표 2>와 같이

6)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2000, p.212
7)이 양식은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원형으로 동서양으로 이동하면서 절충, 변화된 것을 말하며, 평면과 입면 구성을 미적원리로 하여, 완벽한 비례로 대칭시켜 조화를 이루었다.
8)김정동, 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보고서,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1997,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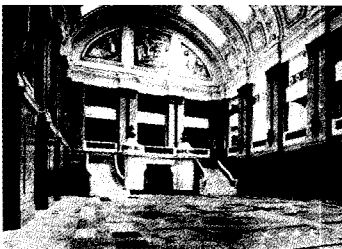
구성되어 있다.

<표 2> 층별 주요 실내공간 구성

구분	실내공간 구성
1층(지하)	회계과, 토목과, 숙직실, 교환실, 소사실, 우편국, 전화교환실, 각종 작업실, 위생실, 제1식당, 취사장, 차고, 물건창고, 매점, 문서수부실, 진료실, 구내우편국, 동·서현관 등
2층	제1식당, 회계과, 문서과, 지방과, 건축과, 토목과, 법무과, 행정과(行刑課), 사회과, 내무국장실, 법무국장실, 신문기자실, 수위실, 중앙대홀, 전면중앙홀 및 좌·우홀, 대현관 등
3층	총독실 및 동 부속실, 정무총감실 및 동 부속실, 제1회의실(대회의실), 경무국장실, 재무국장실, 사계과, 세무과, 경무과, 보안과, 비서과, 위생과, 문서과, 외사과, 이재과, 토목과, 전면중앙홀 및 좌·우홀 등
4층	제2회의실, 사회의실, 학무국장실, 식산국장실, 학무과, 수상과, 토지개발과, 임산부장실, 수리과, 농무과, 상공과, 총무과, 도서과, 임무과, 편직과, 광무과, 시학관실, 전면중앙홀 및 좌·우홀 등
5층	토지개발과, 임야조사위원회, 서고, 도서실, 활동사진 영상실, 조립과, 사진실, 급사실, 광무과, 임산과, 암실, 창고 등

(2) 실내디자인

1) 중앙대홀(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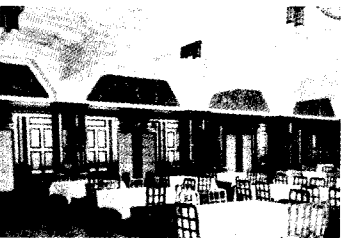


<그림 6> 중앙대홀

중앙대 홀은 전체적으로 대리석과 석고로 마감되고 이 바탕위에 고전양식 또는 르네상스식 건축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아키투레이브(Architrave)등의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북측 계단

부는 장식기둥 2개소와 아름답게 휘어 둘러진 계단 난간과 대리석 가공 및 치장 등에서 미려한 의장기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남측벽면의 윗부분에는 로마시대 공중 목욕장에서 기원이 된 창문 형태와 같은 벽면이 구성되어 벽화가 장식되었다.9) 바닥은 여러 가지 색깔의 대리석판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으로 대형 모자이크를 만들고, 천장은 반원형 아치곡면의 천장면에 곡면을 따라 석고조각물이 콘크리트 골조위에 덧붙여져 장식되어 있고, 천창에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다.

2) 제 1식당(2층)



<그림 7> 제1식당

제 1식당 역시 전체적으로 석고마감에 장식을 하여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3개 출입문들 상부의 아치 윗부분에는 여러 가지의 색 유리로 모자이크가 장식되었다. 식탁은 목재 소재의 모

던한 느낌의 가구를 사용했으며, 이 공간 안에서 목재가 사용된 부분은 벽의 하부 부분과 경판에 염지채우목(鹽地채羽目)이 사용되었다. 천장의 조명 역시 다른 실들과 달리 모던한 조명 기구를 사용하였다.10)

9)김정동, 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보고서,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1997, p.190

3) 총독실 및 응접실(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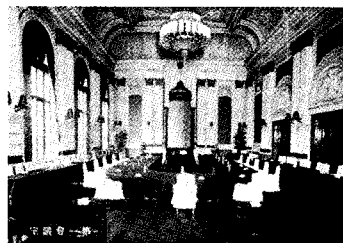


<그림 8> 총독실 내부

총독실은 조선식 목 공예품으로 장식이 되었으며, 클래식한 조각장식들을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목재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사용하였으며, 호도 나무 일색이나 노송 나무를 사용하였고 적색 목은 대만산 '카탄'이라는 나무를 사용하였다. 「신영지(新營誌)」에는 '총독실 및 응접실의 벽은 호도우목(胡桃羽目) 바르고, 천장 소벽은 이

태리 용단을 붙였으며 걸레받이 등은 대리석을 붙이고, 바닥의 중앙일부는 폴크하지에 용단(velvet)을 깔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커튼은 드레퍼리 커튼으로 코니스를 강조하고 있다. 조명은 샹드리에를 사용하였다.

4) 대회의실(3층)



<그림 9> 대회의실 동측면

대회의실은 장식, 의장면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게 치장되어 있다. 「조선과 건축」에 실린 내용과 옛 사진을 통해 보면 <그림 9> 같이 동측의 중앙 벽면에 옥좌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옥좌는 일본의 천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로 인해 대회의실은 건물내부의 공간 중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서측 면 중앙에는 금속판과 옥을 사용한 여러 가지 문양을 낸 난로가 있었는데, 굴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

식 난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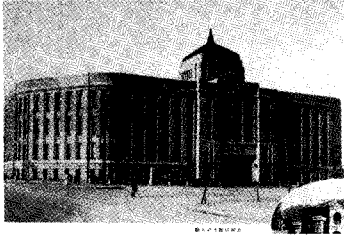
대회의실은 직물공예품이 가장 많이 장식된 곳으로 옥좌 전부를 감색의 무늬를 가진 벨벳으로 덮었고, 내부는 자수가 놓여져 있다. 북측의 창문에는 상부 장식을 이중으로 하여 비단과 손으로 짠 단자(11)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용단을 사용한

10)김정동, 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보고서,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1997, p.213

11)생사(生絲) 또는 연사(練絲)로 짠 광택이나 무늬가 있고 두꺼운 수자

타원형의 발뒀개도 있었다. 조명 역시 중앙에 유리블록이 달린 초대형 산테리아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 내에서 가장 큰 것이다.

3.2. 경성부청사(京城府廳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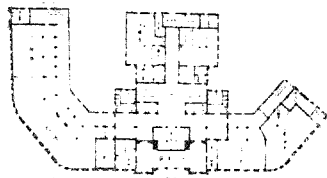


<그림 11> 경성부청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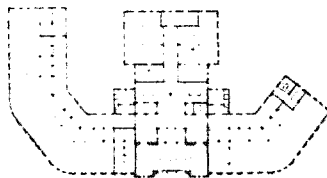
경성부청사는 총독부설계과의 이악이, 사사게이이치 등이 설계하고 이청사의 양식은 전체적으로 프랑스풍 르네상스양식으로 일본 국회의사당을 모방한 절충주의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중앙탑의 돔이나 창문 구조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경성부청은 1914년 10월에 발표된 부제령에 기초하여 제정된 경서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1910년 10월에 공포 시행된 조선총독부 칙령 제357조의 지방관제에 의해 종래의 한성부가 경성부로 고쳐져 경기도 소속이 되었다.¹²⁾

청사의 규모는 4층 높이의 건물로 정면 중앙부 탑은 6층이나 후면 회의실은 3층, 좌우 사무실 앞 복도의 일부는 2층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지형에 따라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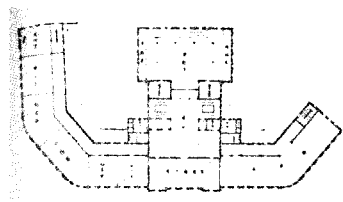
(1) 공간 구성



<그림 12> 1층 평면도



<그림 13> 2층 평면도



<그림 14> 3층 평면도

경성부청사는 총독부설계과의 이악이, 사사게이이치 등이 설계하고 이청사의 양식은 전체적으로 프랑스풍 르네상스양식으로 일본 국회의사당을 모방한 절충주의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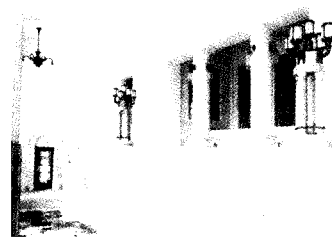
경성부청은 '산(山)'자형으로서 타 지역보다는 지반이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 지하 1층, 지상3층의 근대식 건물로 건평은 668평 4합(합) 2작(勺)이며 실수는 모두 97실이다.¹³⁾ 청사의 내부 배치를 층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평면 전체 형태는 약간의 변형된 산자 형태로 도로를 따라 휘어진 입면 안에서 중심성과 대칭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장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더니즘 건축의 자유스러움과 비대칭의 평면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⁴⁾ 내부 공간에서

는 부분적으로 칸막이벽이 사라져 개방적인 내부공간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른 건축물에 견주어 특이한 점이다.

<표 3> 층별 주요 실내공간 구성

구분	실내공간 구성
제1층	호적계, 세무과, 안전고, 수부실, 숙직실, 전화 교환실, 수도과분실, 공중식당, 소사실, 탕비장, 기관실, 전기실, 총전실, 참고, 전화실등
2층	세무과, 회계과, 수도과, 위생과, 문서계, 연선계, 응접실 등
3층	부윤실, 부윤응접실, 회의실, 의원공실, 토목과, 비서계, 내무계— 권업계, 학무과, 신문기자실 등
4층	정청, 귀빈실, 귀빈응접실, 의원공실, 도시계획계, 응접실, 위원회실, 식당 겸 도서열람실, 기타 예비실 2실, 승강기 기계실
5층	청장실, 승강기 기계실
6층	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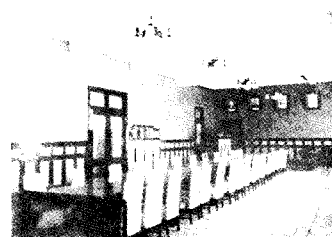
(2)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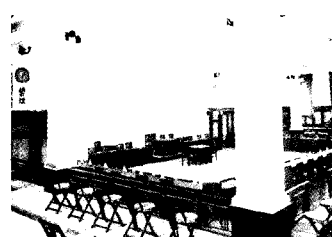
<그림 15> 정면 대현관



<그림 16> 광간



<그림 17> 부윤(府尹) 응접실



<그림 18> 의장

벽체는 대개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했으나 주간은 벽돌을 쌓아 막벽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내부의 벽은 전체적으로 페인트와 회칠을 하여 실내의 조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처리 하였고, 바닥은 현관의 경우 수마 화장암을 길이로 자른 것을 사용하고, 1층 계단의 홀, 공중식당, 동서북 현관, 1·2층 복도는 대리석을 사용했다. 화장실, 수세실, 욕실 등은 타일을 쓰고 2·3·4층 계단의 홀에는 모자이크 타일을 붙였다. 일반사무실 바닥은 리놀륨판을 사용했으나 숙직실 소사실 등에는 다다미를 깔았다. 탑과 회의실은 콘크리트위에 동판을 부착시켰으며 발코니는 6층 지붕위에 타일을 붙임으로써 자연스러운 배치를 하였다. 각 방의 배치 및 구조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대현관의 홀과 계단부분에는 대리석을 사용하고 출입문은 와니스를 칠했다. 정면의 양쪽 기둥과 천정에는 산테리아식 전등을 부착함으로써 우아한 멋을 풍길 수 있게 처리 하였다.

(縹子)조직의 비단

12) 류미영, 서울시청 리노베이션 계획, 홍익대 석론, 2000, p.21

13) 류미영, 앞의 논문, p.22

14) 김훈, 1920~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의 요소별 수용과 통합방식에 관한연구, 서울대 석론, 2005, p.47

3.3. 경성 제3재판소

현재시립미술관 터에는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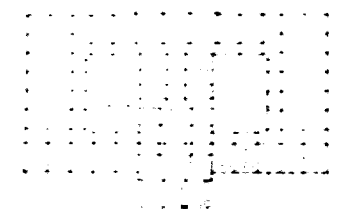
<그림 19> 경성 재판소



<그림 20> 경성 재판소 정면

판소인 평리원이 있었다. 그 후 1926년 6월 타다구미의 설계로 정동 옛 평리원의 터에 일제치하에서 우국지사들을 대량 체포, 구금하기 위한 이른바 ‘경성 재판소’를 세우기로 하고 1927년 착공에 들어갔다. ‘일자’형 평면으로 상자형의 단순한 외관을 지닌 건물로 입면 등에서 근세고딕식 수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전면 부는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인 비례와 대칭, 조화가 뛰어나고 장식의 형태로 박공, 아치, 아케이드 등의 고전적 요소를 이용했다. 아케이드식 일부 창과 출입구의 아이치 등에서 고전풍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양식주의에서 오는 장식과 위엄감을 덜어 주는 등 절충적인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경성재판소의 건축형식은 당시 관공서의 전형으로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1) 공간 구성



<그림 21> 평면도

중심으로 한 일자 형태로 양식주의 건축물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편 복도를 따라 단위 공간을 병렬적으로 연속시켜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다.¹⁵⁾

(2)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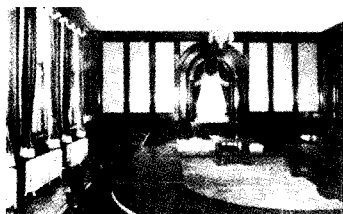
<그림 22> 대광관의 계단

경성 제 3재판소는 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에 건축된 마지막 고전주의 양식 건축물이다.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실려 있는 실내 사진을 보면 대형 출입구가 중앙에

위치하고 층고를 높인 중앙 부분에 아치와 석재 장식을 붙여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직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벽면의 장식이나 요철은 없다. 마감은 철근콘크리트로 벽체



<그림 23> 3층 중앙공간



<그림 24> 대회의실(3층)

에 회반죽으로 마감하였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져 있다. 가구는 전체적으로 장식이 거의 배제된 모던한 느낌의 진한 목재로 된 가구를 사용하였고, 천장에 달린 조명은 심플한 산드레아 조명을 사용하였다. 커튼은 드레퍼리 커튼으로 코니스를 강조하고 있다. 경성부청과 조선총독부와 비교 해 보았을 때 다소 모던한 느낌의 고전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3.4. 부산부청

일제강점 당시 부산 이사 청 청사를 사용하였는데 그 건물은 1904년 일본영사관 건물로 건축된 것이었다. 그 후 1929년 부청사 이전계획이 구체화되어 예산에 올랐으나 부재정이 어려워 시행되지 못하다가 1933~1934년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총독부 부담 18만원과 부산 부 부담 12만원으로 계획하여 건립하게 되었다.



<그림 25> 부산부청 정면

(1) 공간구성



<그림 26> 고등법원 대법정(3층)

부지는 국유지 660평 인접 부유지 507.5평 합계 1167.5평으로 청사 신축 설계는 수정을 걸쳐 1934년 2월 23일 확정하고 준공일을 1935년 10월 18일로 결정하여 추진하였다.¹⁶⁾ 이후 공사는 설계변경과 부대공사로 준공 일을 1936년 3월 31일로 연기하여 1936년 3월 31일 준공을 보아 4월 1일부터 사무를 시작하였다. 건물의 양식은 서구의 전형적인 공공건물 양식으로 특별한 특징은 없었다. 대지 모양에 따라 좌우측 날개 부분이 뒤편으로



<그림 27> 1층 평면



<그림 28> 2층 평면

15) 김훈, 1920~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의 요소별 수용과 통합방식에 관한연구, 서울대 석론, 2005,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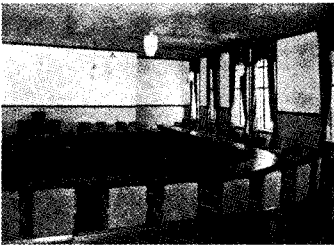
16) 朝鮮と建築



<그림 29> 3층 평면

역시 곡면으로 처리하여 일관된 설계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 실내디자인



<그림 30> 회의실

하고 있다. 벽은 기본적으로 회벽에 소벽을 만들어 마감을 두 가지로 표현하였다.



<그림 31> 부윤실

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전등도 천정 중심에 심플한 형태의 산들레아 등을 사용하였다.

구부러져 있고 좌우측 끝부분은 이 거물만의 특징으로 곡면으로 처리 되어 있다. 또한 돌출된 현관부분이나 건축물 뒤편의 의장 부분

전체적으로 근대주의적인 표현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장식적인 면에서 볼 때 다소 양식주의 장식들이 보이고 있다. 1층 로비에는 철골을 사용하지 않았고 중요한 기둥은 콘크리트를 사용

부윤실의 바닥은 카펫으로 마감하였고, 가구는 장식이 거의 배제된 어두운 색의 가구들을 선택하였다. 천정은 구조물들이 보이고 있으며 격자모양의 장식이 있고 드레퍼리 커튼으로 인해 우아

3.5. 충남도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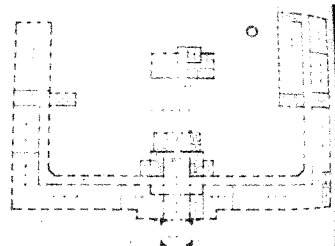
<그림 32> 충남도청

관에 독특한 입체 문양이 있어 눈길을 끈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당시 돈으로 39만 5000원가량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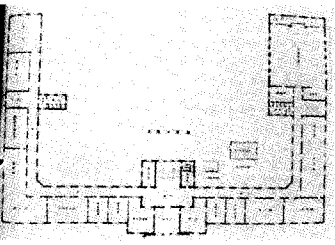
(1) 공간 구성

충남도청은 건평 1,451.39평으로 지하와 지상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은 경성재판소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평면의 일자형태아 아닌 U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내부의 각 실들은 편 복도를 따라 배치되어 있어 제국주의 양식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반면 부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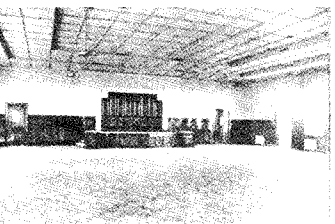
<그림 33> 1층 평면



<그림 34> 2층 평면



<그림 35> 현관



<그림 36> 대회의실

칸막이벽이 사라져 공간의 개방적인 내부 공간으로 다소 모더니즘적인 표현도 보이고 있다.

(2) 실내디자인

충남 도청 역시 경성 3재판소의 영향을 받아 건립되었으며 유사한 형태의 모더니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외부의 정면과 좌·우면은 라이트의 도쿄 제국호텔에 사용한 갈색의 스크래치 타일을 사용하였고, 장식은 화강석으로 하였다. 내부에는 천장과 바닥에 6종의 무늬가 12개소나 장식되거나 모자이크되어 있는데, 모두가 하학적인 틀 속에서 다소 변형을 가하거나 겹쳐 장식적인 효과를 냈다. 일반 사무실은 리놀륨 판으로 마감을 하고 일반사무실 지사실, 부장실, 식당, 소 회의실 등의 벽은 페인트 칠한 후 니스칠을 하여 마감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모던한 형태의 장식들을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3.6. 인천부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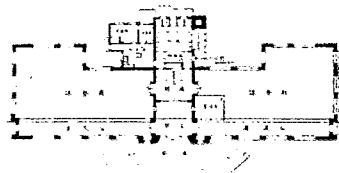
<그림 37> 인천부청사

인천부청사는 1932년 8월에 착공하여 1933년 6월에 준공되었다. 건물 외관은 타일을 붙이고 구조는 면외조로 2층건물이다. 양식은 근대식으로 건설에 소요된 공사비는 68,000원으로 193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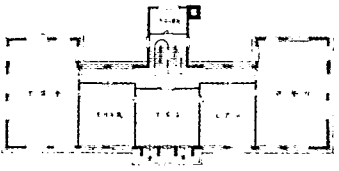
에 준공된 충청도청사보다 규모와 시설 면으로는 크지 않은 청사이다. 입면에서는 기둥과 수평창을 통해 수직과 수평을 강조하고 있다.

(1) 공간 구성

인천부청사의 연면적은 412평, 건평은 198평으로 2층으로 건축되고 15실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에서는 칸막이벽을 없애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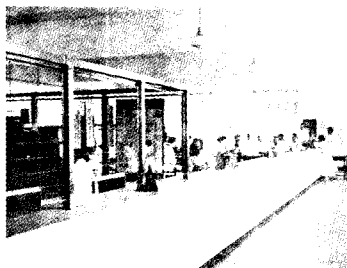


<그림 38>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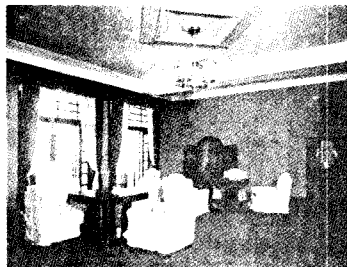


<그림 39> 2층 평면도

(2)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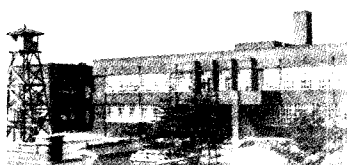
<그림 40> 일반 사무실



<그림 41> 귀빈실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의 실내를 갖고 있으나 귀빈실과 계단실에서는 다소 고전적인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고, 외벽은 타일을 붙여 마감하였다. 실내벽은 회백칠로 마감하였다. 사무실의 바닥은 리놀륨 판으로 마감을 하였고 벽은 회백칠로 마감을 하고 좀더 진한 색으로 아래 부분을 칠하는 등 소벽을 사용하는 개념과 같이 사용되었지만 좀더 경제적이고 모던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창을 통해 빛의 유입이 많도록 디자인이 되었다. 홀과 복도 등은 모자이크스타일의 타일로 마감을 하였다. 창문의 틀은 스틸로 되어 있다. 일반사무실과는 다르게 귀빈실은 모던한 느낌과는 반대로 여전히 고전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천장에는 코니스가 있고 드래퍼리 커튼은 이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으며 천정 가운데 조명은 심플한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천정에는 조각된 몰딩이 장식되어 있다. 모더니즘을 지향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고전적인 양식을 여전히 고수하여 권위적임을 표현하고 있다.

3.7. 신의주 부 청사



<그림 42> 신의주 부 청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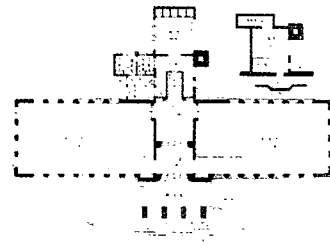
공간을 형성하여 내부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기능에 따라 실들이 각 층에 따라 달리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앙계단실과 복도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 여전히 평면 안에서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의 실내를 갖고 있으나 귀빈실과 계단실에서는 다소 고전적인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고, 외벽은 타일을 붙여 마감하였다. 실내벽은 회백칠로 마감하였다. 사무실의 바닥은 리놀륨 판으로 마감을 하였고 벽은 회백칠로 마감을 하고 좀더 진한 색으로 아래 부분을 칠하는 등 소벽을 사용하는 개념과 같이 사용되었지만 좀더 경제적이고 모던한 형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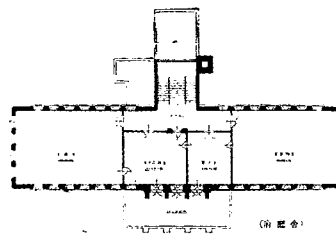
신의주 부 청사는 1933년 평안북도 내무부 회계과의 공사 감독 아래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의 설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총 건평 906.355평으로 지하와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대식으로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이다.

(1)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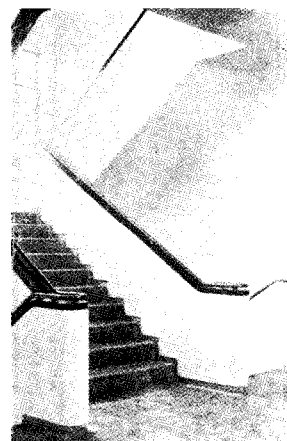
<그림 43>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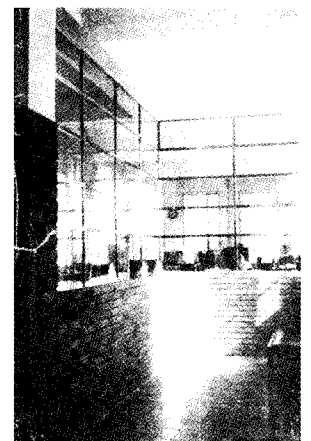
<그림 44> 2층 평면도

신의주부청사는 1층 475.509평, 2층 389.500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면에서 보면 모더니즘을 받아들여 타일로 마감하였고 요철이나 장식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수평 창을 전면과 후면에 배치하고 있어 빛의 유입이 많도록 설계되었다. 전면 중앙에는 캔틸레바가 위치하고 있는 등의 근대적인 수법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평면의 구성은 T형태로 인천부청사와 유사한 형태임을 볼 수 있다. 중앙의 복도를 따라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칸막이벽을 없애는 등의 개방적인 평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부의 각실 들은 중앙의 복도를 따라 양쪽으로 실이 배치되어 있어 여전히 권위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2) 실내디자인



<그림 45> 정면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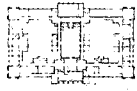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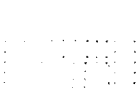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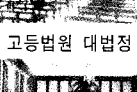
<그림 46> 1층 공중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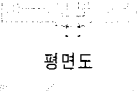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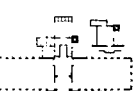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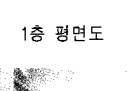

신의주부청사의 입면 형태는 역시 경성 3재판소이 영향을 받아 건립되었으나 인천청사와 비슷하게 좀 더 모더니즘의 성격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층과 2층의 전, 후면의 수평 창을 통해 실내에 빛을 많이 유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벽은 기본적으로 회벽으로 되어 있어 빛의 반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바닥은 일반사무실은 리놀륨판을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타일을 깔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등은 심플한 형태의 반간접조명을 사용하고 있다. 실내에도 소벽과 조각 등과 같은 장식과 샵드레아 등의 사용을 배제하여 사용하는 등 공간에 있어서도 역시 절제된 모더니즘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4. 근대 관청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표현특성

근대관청 건물의 각 공간별 공간구성과 실내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공간별 실내디자인 특성

구분	실내 공간 표현특성	
 조선총독부 朝鮮總督部 1926 - 1995 출처 : 朝鮮 & 建築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일자형의 평면 형태로 완벽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2개의 중정을 끼고 편 복도를 두고 각 실 구성. 조전식, 르네상스 양식을 주로 사용하여 클래식한 느낌으로 표현.
	 중앙대홀	요소 디자인 실내 벽, 천정의 재료는 석고로 마감한 후 장식을 하고, 바닥은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 주로 대리석으로 모자이크 모양으로 마감하고 총독실 등에는 카펫과 산드레아 조명을 사용하여 화려함 표현.
	 총독실	표현특성 웅장하고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공간별로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화려한 장식의 가구의 사용 등으로 인한 제국주의 고전주의 양식을 나타냄.
 경성부청 京城部廳 1926 - 현재 출처 : 朝鮮 & 建築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변형된 山자형의 평면 형태로 도로를 따라 휘어져 완벽한 좌우대칭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심성과 대칭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장요소를 적극 사용.
	 공간	요소 디자인 실내 벽은 페인트와 회칠을하여 조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처리, 바닥은 화강암을 사용하였고 속직실은 다다미를 사용. 드레퍼리 커튼을 달고 산드레아 조명 및 장식 있는 가구 사용.
	 부운 응접실	표현특성 조선총독부에 비해 장식이 배제되었으나 공간별로 장식이 많은 요소와 가구를 사용하여 고전주의 양식을 선택.
 경성 3재 판소 京城 三裁判所 1927 - 현재 출처 : 朝鮮 & 建築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조선총독부와 같은 형태인 일자형으로 중정을 두고 있음. 편 복도를 따라 단위 공간을 병렬적으로 연속시켜 내부공간을 구성한 양식주의 건축물의 일반적인 특징.
	 고등법원 대법정	요소 디자인 석재장식을 사용하여 중심성을 강조. 수직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벽면의 장식이나 요철은 없음. 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
	 대회의실	표현특성 평면형태 및 입면의 형태는 완벽대칭 및 반복사용을 하고 있지만 모던한 가구를 사용하고 장식을 거의 배제하는 등의 절충주의 양식.

 부산부청 釜山部廳 1936 - 1998 출처 : 朝鮮 & 建築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山자형의 평면을 갖고 있으나 대지의 모양에 의해 좌우측 날개부분이 뒤편으로 구부러져 있고 끝부분은 곡면으로 처리. 현관과 뒤편 회의장 역시 곡면으로 처리해 일관된 설계원칙 적용.
	 회의실	요소 디자인 내부벽면에 소벽을 만들어 마감을 달리하여 마감. 우아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카펫을 깔고 드레퍼리 커튼과 산드레아 조명을 사용.
	 부운실	표현특성 평면의 형태에서는 완벽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각 공간별로는 장식이 배제되어 있으며 모던한 가구를 사용하여 절충주의 양식을 표현.
 충남도청 忠南都廳 1931 - 현재 출처 : 朝鮮 & 建築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중앙대홀과 일직선상에 위치한 후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장식이 배제되고, 모던한 느낌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관	요소 디자인 벽과 천장은 석고로 마감 후 장식. 출입문 쪽의 모자이크가 장식을 제외하고는 간결하게 표현. 목재소재의 모던한 느낌의 가구 사용. 조명 역시 모던한 조명기구를 사용.
	 대회의실	표현특성 공간에 장식을 사용하였지만, 모던한 가구를 사용하여 절충적 양식을 선택.
 인천부청 仁川部廳 1933 - 출처 : 朝鮮 & 建築	 1층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외관은 모던한 느낌의 수직과 수평요소를 강조. 평면에서 모듈을 적용하고 칸막이벽은 없애 개방성을 확보하고 층별 배치를 달리하는 등의 현대적인 형태의 특성이 나타남.
	 귀빈실	요소 디자인 수평을 통해 햇빛의 유입이 많아지는 등의 현대적인 입면. 입구부분의 바닥과 벽면은 타일로 마감하고 회백칠을 하여 모던한 분위기 연출. 귀빈실등은 고전적인 요소 사용.
	 귀빈실	표현특성 국제주의 경향을 표현한 모더니즘 양식. 평면과 실내구성요소에서 고전적인
 신의주부청 新義州部廳 1933 - 출처 : 朝鮮 & 建築	 1층 평면도	공간형태 표현 T 형태의 평면으로 중앙의 평면을 중심으로 각각의 실들이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 평면도	요소 디자인 수평창이 전면에 걸쳐 있음. 천정과 벽은 백색의 페인트칠하여 마감하고, 바닥은 리놀륨판과 타일로 마감. 외부역시 타일로 마감.
	 1층 공중사무실	표현특성 국제주의 경향의 모더니즘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평면의 구성이나 실내요소에서는 부분적으로 고전적인 요소 사용.

5. 결론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관청의 태동과 변천과정을 시대적 배경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관청에 나타난 실내 공간 구성을 파악하여 실내 공간 표현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대관청의 태동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하게 된다. 이에 따른 관청 건물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 1926년 완공된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하여 경성부청, 경성재판소가 건립되게 되고 각 지방 도청, 부청 및 경찰서등이 생겨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관청은 일제 식민지 통치 지배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관청의 중심인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은 철저하게 제국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면의 완벽한 대칭형을 이루고 있으며, 편 복도를 두고 그 옆으로 각 실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실내공간에서도 바닥의 마감은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벽은 석고마감을 한 후 장식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또한, 가구와 요소디자인에 있어서도 장식을 많이 사용하여, 설계당시 유행을 하던 제국주의 경향의 고전주의 양식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경성부청 건립 직후에 지어진 경성 제3 재판소와 비교해보면 이 역시 좌·우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일자형의 평면을 갖고 있고, 전면의 수직창의 반복등인 요소가 제국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내에 사용된 소벽이나 공간에 사용된 절제된 장식의 요소들을 보면 국제주의 경향의 모더니즘을 받아 들여 절충주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부산부청과 충남도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부산부청과 충남도청은 각각 산자형과 U자형의 평면을 갖고 있으며 완벽한 대칭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산부청의 경우는 도로를 따라 양끝 날개가 뒤로 향하고 모서리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여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청은 좌·우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실내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칸막이 벽이 사라져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193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국제주의 경향을 띤 근대주의 양식의 건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예로 인천청사와 신의주 부 청사를 들 수 있다. 이 두 건물모두 요청과 장식을 없애고 기본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타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큰 수평창과 기둥을 들어냄으로써 수평과 수직을 강조 하는 등의 모더니즘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라는 건물의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고전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평면구성은 개방적인 실을 표현함과 동시에 여전히 중앙의 복도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등의 권위적임과 상징성을 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실내공간에서도 들어난다. 일반사무실 등의 공간은 장식을 거의 배제한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귀빈실과 같은 곳은

다소 절제가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고전적인 우아한 느낌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근대 관청 건축물들은 동시대에 서구에서 나타나는 경향의 양식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초기에 관청은 당시 유행하던 제국주의 양식을 선택하여 권력과 웅장함을 강조하기 위해 과다한 장식이 사용되었다. 그러다 모더니즘이 유입이 되면서 평면 또는 디자인 요소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게 되다 3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국제주의 경향의 모더니즘 양식의 성격의 건축물들이 건립이 된다.

근대 건축물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일제의 주관 하에 서양인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만큼 우리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치욕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건축물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근대 관청이 갖는 건축적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의 올바른 실내공간의 미학적 가치를 이해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근대 실내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현대 실내 공간 사이의 사회성과 역사성이 부여되어 한국 실내디자인 사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건축문화의해조직원위원회, 한국건축100년전, 피아, 1999
2. 김정동, 김정동 교수의 근대건축기행, 푸른역사, 1999
3. 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2000
4.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5. 김영상, this is seoul,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7
6. 김훈, 1920~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의 요소별 수용과 통합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5
7. 남경숙, 한국실내건축의 개척과 성장, 미건사, 2002
8. 서울 600년사 제6편, 일제침략하의 서울, 서울특별시 편찬 위원회, 1990
9. 신영훈, 우리 건축 100년, 현암사, 2001
10. 허영섭,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 한울, 1996
11. 문화체육부, 구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보고서 上·下 1997
12. 박진배, 근대 서구 실내디자인 특성의 정립과정에 관한 고찰, 연세대 석논, 1987
13. 박현우, 지방자치시대의 공공청사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론, 2006
14. 박홍,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 1992
15. 송석기, 한국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으로의 양식변화, 연세대 박사, 1999
16. 이근혜·오인욱, 조선총독부청사 실내 공간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내디자인학회 제 16권 1호, 2007
17. 京城府史 제2권, 1934
18. 朝鮮と建築, 조선총독부신청사호 제5집 제5호
19. [http : //cafe88.daum.net/c21/bbs](http://cafe88.daum.net/c21/bbs)
20. Nikolaus Pevsner, The Sourc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N.Y, Oxford Univ. Press, 1979

<접수 : 2007. 8. 31>